

2024 이베이
추가자료

독서법 모음집

기출 2개년 + 2024 EBS 독서법 전체

2024 EBS 수능특강 + 수능완성 독서법 전체 모음

자료 설명

EBS 수능특강/수능완성 독서법 모음입니다.
독서법 지문만 평가원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문제 풀이는 추천해드리지 않기에 문제는 제외하여 편집하였습니다.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앞부분에는 최근 2개년도 기출 지문을, 뒷부분에는 올해 EBS를 모두 담았습니다.

자료 활용

본 자료는 가볍게 읽으시면 됩니다. 달달 외우거나 그럴 필요 없이,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독서법 지문은 내용은 항상 단순하게 나옵니다.

독서법 소소한 팁

독서법은 항상 단순하게 나옵니다. 너무 어렵게, 학문처럼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평가원 시험에서) 독서법을 틀리는 대부분의 학생은 몰라서 틀리기보다는 실수로 틀리는 학생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반면, 사실 모의고사는 어렵고 추상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는 해서 제외하겠습니다. 아무튼, 실수를 잡는 다양한 방법에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실수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독서법에서 잦은 실수가 있으니, 꼭 두 눈으로 근거를 확인해야겠다", "독서법은 천천히 읽어보자"라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인드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독서법 지문을 가볍게 읽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나오기도 하고, 교훈이 항상 '좋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몽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가르침을 주는 내용으로 나온다는 점에서 '윤리적으로/학업적으로 당연한 내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글을 읽으면서 '배우는 자세'로 임하거나, 당연한 내용이라 확인하는 자세로 읽는 것도 또 한가지 방법입니다. 물론, 이런 방법은 모두 일종의 '추천'이라는 점에서 사실 모의고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테스트를 하며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EBS 독서법 연계 되나요?

최근 2개년 기준 (본 자료에 첨부된 모든 기출지문) **단 한 차례도 연계된 적이 없습니다.** 즉, EBS 독서법 지문은 사실상 읽을 필요도 없을뿐더러, 본 자료도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결론적으로 본 자료는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이유로 보는 것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있으니깐 한두번 훑으면서, 유튜브 영상 같은 거 하나 볼 시간에, 잠이 안올 때 잠오고 싶을 때 읽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혹시 모를 연계에 대한 대비

연계의 효용성은 적은 편이고, 예상하지 못한 연계의 확률도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 경우, 여차피 독서법은 본 자료만 읽으면 되고, 그 시간이 20분도 걸리지 않으므로 읽기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입니다. 실질적인 시험 점수보다는 심리적인 이유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예열지문으로의 활용

독서법을 먼저 푸는 학생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활용하기 좋은 자료인 것이죠. 시험 당일 읽을 만한 지문이 없을 때(저는 수능장에서는 그 해 6/9월 지문 중 많이 틀린지문이나 연계 확률이 높은 지문(모의고사나 이배이 에센셜 등을 읽으라고 합니다.) 읽기 좋은 자료인 것입니다. 특히 예열지문의 특성상 정보량의 압박이 있는 지문을 읽는 것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학생들에게 활용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3) 독서법 교정

사실 이 자료에 있는 독서 방법이나 교훈만 알아도 비문학에서 많은 실력향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작성하면서 이유가 2개보다는 3개인 것이 보기 좋아서 억지로 넣은 내용입니다.

2024 6월 평가원 Q. 1-3	독서 동기의 종류와 성공적인 독서법
<p>독서 동기는 독서를 시작하고 지속하는 동력을 말한다. 이는 '때문에 동기'와 '위하여 동기' 두 유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때문에 동기'는 독서를 시작하는 이유를 의미하며, 독서 이전의 사건이나 경험에 해당한다. '위하여 동기'는 독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의미하며, 독서 이후의 상태에 대한 기대나 예측을 가지고 있다. 독서 습관 형성에는 독서를 즐겁고 유익한 경험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경험이 새로운 독서 행위를 유발하고 지속하는 동기가 된다. 따라서 독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때문에 동기'와 '위하여 동기'를 기반으로 독서를 시작하고 성공적인 경험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p>	

선생님의 권유나 친구의 추천, 자기 계발 등 우리가 독서를 하게 되는 동기는 다양하다. 독서 동기는 '독서를 이끌어 내고, 지속하는 힘'으로 정의되는데, 이 정의에는 독서의 시작과 지속이라는 두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독서 동기는 슈츠가 제시한 '때문에 동기'와 '위하여 동기'라는 두 유형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독서의 '때문에 동기'는 독서 행위를 하게 만든 이유를 의미한다. 이는 독서 행위를 유발한 계기가 되므로 독서 이전 시점에 이미 발생한 사건이나 경험에 해당한다. 독서의 '위하여 동기'는 독서 행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의미한다. 그 목적은 독서 행위의 결과로 달성되므로 독서 이후 시점의 상태에 대한 기대나 예측이라는 성격을 가지며,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책을 선물로 받아서 읽게 되었다고 할 때, 선물로 책을 받은 것은 이 독서 행위의 '때문에 동기'이다. 그리고 책을 읽고 친구와 책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했다면 이는 '위하여 동기'가 된다. 또한 독서 행위를 통해 성취감이나 감동을 느끼는 것, 선물로 받은 책을 읽어서 친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 등도 이 독서 행위의 결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역시 '위하여 동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기 개념은 독서 습관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성공적인 독서 경험의 핵심은 독서 행위를 통해 즐거움과 유익함을 경험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 다른 책을 더 읽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그러한 마음은 새로운 독서 행위로 연결된다. 독서의 즐거움과 유익함

은 새로운 독서 행위의 이유가 된다는 점에서 '때문에 동기'가 된다. 동시에, 새로운 독서 행위를 통해 다시 경험하고 싶어지는 '위하여 동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선순환을 통해 독서 경험이 반복되고 심화되면서 독서 습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따라서 독서 습관을 형성하려면 '때문에 동기'와 '위하여 동기'를 바탕으로 우선 독서 행위를 시작하는 것과, 성공적인 독서 경험을 통해 독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3 수능 Q. 1-3	독서에서의 소통의 즐거움
<p>독서의 즐거움은 '소통의 즐거움'에 기인한다. 독자는 책을 통해 필자와 소통하며 자신이 속한 사회나 시대의 영향을 경험하고 새로운 시야를 얻을 수 있다. 독자의 배경, 관점 및 읽기 상황에 따라 필자가 보여주는 세계를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독자는 질문을 제기하고 답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소통의 즐거움을 더욱 느낄 수 있다. 또한 독서 모임이나 독서 동아리를 통해 다른 독자들과 소통하며 의미를 공유하고 관점을 조정할 수 있다. 온라인 소통 공간이 확대되면서 독서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다양해졌다. 자신의 독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책과 소통하지 않은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다.</p>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책을 읽는 이유 중 하나는 즐거움이다. 독서의 즐거움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소통의 즐거움'이 있다.

독자는 독서를 통해 책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경험한다. 독서는 필자와 간접적으로 대화하는 소통 행위이다. 독자는 자신이 속한 사회나 시대의 영향 아래 필자가 속해 있거나 드러내고자 하는 사회나 시대를 경험한다.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삶을 필자를 매개로 만나고 이해하면서 독자는 더 넓은 시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 이때 같은 책을 읽은 독자라도 독자의 배경 지식이나 관점 등의 독자 요인, 읽기 환경이나 과제 등의 상황 요인이 다르므로, 필자가 보여 주는 세계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저마다 소통 과정에서 다른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소통은 독자가 책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가능해진다. 독자는 책에서 답을 찾는 질문, 독자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질문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책에 명시된 내용에서 답을 발견할 수 있고, 책의 내용들을 관계 지으며 답에 해당하는 내용을 스스로 구성할 수도 있다. 또한 후자의 경우 책에는 없는 독자의 경험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질문들을 풍부히 생성하고 주체적으로 답을 찾을 때 소통의 즐거움은 더 커진다.

한편 독자는 다른 독자와 소통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 책과의 소통을 통해 개인적으로 형성한 의미를 독서 모임이나 독서 동아리 등에서 다른 독자들과 나누는 일이 이에 해당한다. 비슷한 해석에 서로 공감하며 기존 인식을 강화하거나 관점의 차이를 확인하고 기존 인식을 조정하는 과정

에서, 독자는 자신의 인식을 심화·확장할 수 있다. 최근 소통 공간이 온라인으로 확대되면서 독서를 통해 다른 독자들과 소통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양상이 더 다양해지고 있다. 자신의 독서 경험을 담은 글이나 동영상을 생산·공유함으로써, 책을 읽지 않은 타인이 책과 소통하도록 돕는 것도 책을 통한 소통의 즐거움을 나누는 일이다.

2023 9월 평가원 Q. 1-3	눈동자 움직임으로 분석한 독서
<p>눈동자 움직임 분석은 독자의 사고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독자는 글을 읽을 때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단어나 생소한 단어에 집중하며 읽는다. 눈동자 움직임 연구에 따르면, 독자는 단어에 눈동자를 고정하고 그 사이에서 도약을 보인다. 도약은 짧은 도약과 긴 도약으로 구분되며, 긴 도약은 건너뛴 단어를 의미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것을 나타낸다. 중요한 단어나 생소한 단어일수록 고정 시간이 길고 고정 횟수가 많았다. 눈동자 움직임은 독자의 읽기 능력에 따라 변화하며, 발달된 독자는 단어마다 고정하지 않고 도약을 더 자주 보인다. 읽기 능력의 발달로 인해 고정 시간과 횟수가 줄어들고 단어를 건너뛰는 도약이 더 자주 일어난다. 학습 경험과 독서 경험으로 인해 글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중요한 단어 선택 능력이 향상되며, 문맥 파악을 위한 도약이 자주 나타난다.</p>	

글을 읽는 동안 독자의 사고 과정을 밝힐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이다. 이것은 사고 과정이 눈동자의 움직임에 반영된다고 보고 그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눈동자 움직임에 주목한 연구에 따르면, 글을 읽을 때 독자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단어나 생소하다고 생각한 단어를 중심으로 읽는다. 글을 읽을 때 독자는 눈동자를 단어에 멈추는 고정, 고정과 고정 사이에 일어나는 도약을 보였는데, 도약은 한 단어에서 다음 단어로 이동하는 짧은 도약과 단어를 건너뛰는 긴 도약으로 구분된다. 고정이 관찰될 때는 단어의 의미 이해가 이루어졌지만, 도약이 관찰될 때는 건너뛴 단어의 의미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글을 읽을 때 독자가 생각하는 단어의 중요도나 친숙함에 따라 눈동자의 고정 시간과 횟수, 도약의 길이와 방향도 달랐다. 독자가 중요하거나 생소하다고 생각한 단어일수록 고정 시간이 길었다. 이러한 단어는 독자가 글의 진행 방향대로 읽어 가다가 되돌아와 다시 읽는 경우도 있어 고정 횟수도 많았고, 이때의 도약은 글의 진행 방향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중요한 단어나 생소한 단어가 연속될 때는 그 단어마다 눈동자가 멈추면서 도약의 길이가 짧았다.

눈동자 움직임의 양상은 독자의 읽기 능력이 발달하면서 변화 한다. 읽기 능력이 발달하면 이전과 같은 수준의 글을 읽거나 전에 읽었던 글을 다시 읽을 때, 단어마다 눈동자를 고정하지는 않게 되어 이전보다 고정 횟수와 고정 시간이 줄어들고 단어를 건너뛰는 긴 도약이 자주 일어나는 모습이 관찰된다. 학습 경험과 독서 경험이 쌓이면서 글의

구조에 대한 지식과 아는 단어, 배경지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읽기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면서 글에서 중요한 단어를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때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 이미 읽은 단어를 다시 확인하려는 도약, 앞으로 읽을 단어를 먼저 탐색하는 도약 등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2023 6월 평가원 Q. 1-3	매튜 효과로 설명하는 읽기 능력
<p>글을 읽기 위해서는 읽기 기능, 어휘력, 읽기 흥미 및 동기 등의 요소가 필요하다. 어휘력 발달에 관한 연구에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어휘력 격차가 커지는 것이 보고되었다. 어휘력이 높은 학생은 더 많이 읽고 어휘를 습득하며, 어휘력이 낮은 학생은 읽기 양과 어휘 습득 기회가 부족하여 격차가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읽기 요소를 잘 갖춘 독자는 계속해서 발전하며 다른 독자와의 차이가 커지는 매튜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매튜 효과로만 읽기 능력을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읽기 요소들은 개인마다 발달 속도와 상호작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읽기 흥미나 동기의 발달은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읽기 기능을 견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읽기를 매튜 효과로 설명하는 것은 단순한 지능의 차이에 읽기 능력이 달라지는 관점을 벗어나 읽기 요소들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p>	

글을 읽으려면 글자 읽기, 요약, 추론 등의 읽기 기능, 어휘력,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이 필요하다. 글 읽는 능력이 발달하려면 읽기에 필요한 이러한 요소를 잘 갖추어야 한다.

읽기 요소들 중 어휘력 발달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어휘력이 높은 학생들과 어휘력이 낮은 학생들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더 커짐이 보고되었다. 여기서 어휘력 격차는 읽기의 양과 관련된다. 즉 어휘력이 높으면 이를 바탕으로 점점 더 많이 읽게 되고, 많이 읽을수록 글 속의 어휘를 습득할 기회가 많아지며, 이것이 다시 어휘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반대로, 어휘력이 부족하면 읽는 양도 적어지고 어휘 습득의 기회도 줄어 다시 어휘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됨으로써, 나중에는 커져 버린 격차를 극복하는 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읽기 요소를 잘 갖춘 독자는 점점 더 잘 읽게 되어 그렇지 않은 독자와의 차이가 갈수록 커지게 되는데, 이를 매튜 효과로 설명하기도 한다. 매튜 효과란 사회적 명성이나 물질적 자산이 많을수록 그로 인해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그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는 주로 사회학에서 사용되었으나 읽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글 읽는 능력을 매튜 효과로만 설명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우선, 읽기와 관련된 요소들에서 매튜 효과가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인지나 정서의 발달은 개인마다 다르며, 한 개인 안에서도 그 속도는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읽기 흥미나 동기의 경우, 어릴 때는 상승 곡선

을 그리며 발달하다가 어느 시기부터 떨어지기도 한다. 또한 읽기 요소들은 상호 간에 영향을 미쳐 매튜 효과와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한다. 가령 읽기 기능이 부족한 독자라 하더라도 읽기 흥미나 동기가 높은 경우 이것이 읽기 기능의 발달을 견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기를 매튜 효과로 설명하는 연구는 단순히 지능의 차이에 따라 글 읽는 능력이 달라진다고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읽기 요소들이 글을 잘 읽도록 하는 중요한 동력임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4 개념#3 수특 p14	깊이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고전 읽기의 필요성
<p>이 글은 실용을 위한 독서의 비중이 높아진 세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면서, 대안으로 고전 읽기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고전의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에게 높이 평가되고 애호된 저술'로 정의될 수 있는 고전은 인류 전체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인류 문명을 지속시키는 수단으로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좋은 책을 가리킨다.</p>	

실용적 가치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세상에서 독서도 예외는 아니다. 당장에는 쓸모가 없어 보이지만 정신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내면의 변화를 이끄는 독서 대신 생계와 취업의 요령, 여행이나 연애, 목돈 만들기 등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독서를 권하는 것이 최근의 세태이다. 진정한 교양인이라면 시중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차지한 책, 실용을 위한 책, 처세술을 담은 책을 넘어 다양한. 기왕이면 대가의 시각에서 인간과 삶, 세상의 보편적 가치를 해석하고 표현한 책을 읽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책의 목표에는 시대와 국정을 뛰어 넘는 가치를 획득한 (고전(古典)이 포함되어야 한다. 광의(廣義)의 고전은 음악과 미술, 조각과 건축, 의상과 가구에 이르기까지 세월의 흐름을 초월해 다음 세대에 계승되어 전부의 한 자리 잡은 모든 예술 작품을 이르는 말이다. 하지만 좁은 의미의 고전'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직원에 높이 평가되고 애호되어 수없이 되풀이 읽히는 저술을 가리킨다. 고전은 개인의 창작물이지만 그가 속한 문화권과 인류 전체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고전이 세월의 흐름을 초월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세월이 흘러도 인간과 세상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담고 있는 고전으로 인해 인류의 문명이 지속될 수 있다. 지금까지 고전의 지위를 유지한 책들에는 인간이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로 발돋움하는 데 필요한 온갖 사유와 지혜, 지식과 정보가 들어 있다.

<p>2024 개념#12 수특 p46</p>	<p>능동적인 독서를 위한 방법과 태도</p>
<p>이 글은 선인들의 독서법을 언급하며 능동적인 독서의 방법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박세채는 글 속으로 깊이 들어가 의심을 갖고 의심이 풀릴 때까지 따져 보고 음미하는 독서를 강조하면서, 진정한 앞에 이르기 위한 방법으로 ‘궁격’과 ‘완미’를 제시하였다. 이익은 책을 읽다가 떠오른 생각을 적어 두는 ‘질서’를 강조하였고, 책의 내용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깊이 생각하는 자세를 중시하였다. 또한 독서를 심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택’을 제시하였다. 박세채와 이익이 언급한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능동적인 독서의 방법으로서, 책의 본질을 꿰뚫고 책의 정수를 들이마실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p>	

독서는 책과 독자 사이의 소통이다. 그저 눈으로 종이 위의 글자를 따라가는 것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글자가 적힌 종이를 잠시 뒤적이다 놓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선인들은 책과 책을 읽는 사람이 소통함으로써 책의 정수를 들이마실 수 있으며, 그러한 독서는 의문을 품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였다. 17세기의 박세채는 독서천설(讀書淺說)에서 책을 읽고도 의심을 품을 줄 모르는 것이 이제 막 배움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병통이라고 하면서 글 속으로 깊이 들어가 의문을 가지고 의문이 풀릴 때까지 따져 보고 생각하는 능동적인 독서 태도를 강조하였다. 또한 의문의 심화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는 진정한 앞에 이르는 것. 즉 ‘치지(致知)’라고 말하면서 치지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궁격(窮格)’과 ‘완미(玩味)’를 제시하였다. ‘궁격’이란 의문을 물고 늘어져 끝장을 보는 집중과 몰두의 공부를 의미하고, ‘완미’란 책에 담긴 뜻을 천천히 되새기고 음미하며 차근차근 알아 가는 방식의 공부를 의미한다.

우리에게 ‘성호사설(星湖僿說)’로 잘 알려진 이익은 독서에 있어 의문을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질서(疾書)’를 강조하였다. 질서란 책을 읽다가 그때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을 메모해 두는 방식의 독서를 말한다. 이익은 송대의 학자인 장재가 책을 지을 적에 집 안 곳곳에 붓과 벼루를 놓아두고, 간혹 밤중에도 의심되는 바가 있으면 벌떡 일어나 등불을 가져다가 메모를 한 것에서 이 말이 나왔다고 설명하였다. 이익은 이러한 장재의 태도를 본받아 자신이 경전을 읽다가 떠오른 의문을 그때그때 기소해 둔 것을 바탕으로 ‘사서삼경질서(四書三經疾書)’, ‘근사록질서(近思錄疾書)’ 등의 방대한

저술을 자했다. 또한 이익은 ‘논어질서(論語疾書)’의 서문에서 주자의 책을 읽으며 조금도 깊이 생각하려 들어 않고 책의 내용을 곧이곧대로 받아들려고 한다면 주자의 해설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마음으로 체득하는 독서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익은 의문을 품고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옆길로 잘못 들어 갔은 곤란을 겪은 뒤 어렵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에 견주었다. 남의 도움을 받아 단번에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과 달리, 어려움을 겪어 본 사람은 그 다음번에 혼자 길을 갈 때에 길을 잃고 헤맬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또한 이익은 책의 내용에 대한 강론과 토론을 통해 학문적 성취를 이루는 것을 ‘이택’이라고 일컫고, 사제 간, 문생 간의 토론을 통해 책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여 깨달음을 투철하게 하는 과정을 중시하였다. 토론이라는 심화 단계를 통해 책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바람직한 독서 태도로 언급되는 능동적인 독서 태도와 상통한다.

2024	효과적인 독서 전략과 의미 구성 능력의 향상 방안
모고#1-1	
수특 p282	
<p>이 글은 독서를 일종의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효과적인 독서 전략과 의미 구성 능력의 향상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독자가 효과적으로 글의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독서 단계에 맞는 적절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능숙한 독자라도 항상 적절한 독서 전략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는 없으므로 독서 전략을 수시로 점검하고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 구성 능력은 독서 단계에 맞는 적절한 독서 전략을 활용한 독서 활동이 충분히 축적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향상된다.</p>	

독서를 일종의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볼 때, 독서를 통해 얻게 되는 의미는 그 과정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보 처리의 과정은 글의 의미를 구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독자가 효과적으로 글의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정보 처리의 과정, 즉 독서 단계에 맞는 적절한 전략이 필요하다. 가령 글을 읽는 중에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핵심어나 핵심 문장을 찾고, 이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의미 단위로 재구성하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글을 다 읽은 후에 글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자 한다면 글에서 얻은 정보나 교훈을 자신의 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다. 능숙한 독자는 글을 읽기 전부터 글을 다 읽은 후까지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각 단계에 맞는 적절한 독서 전략을 활용하여 그 의미를 효과적으로 구성해 내지만, 그러한 전략을 알지 못하거나 잘 적용하지 못하는 미숙한 독자는 결국 의미 구성에 실패하게 된다.

글의 의미 구성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독자는 각각의 처리 단계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각 단계가 올바르게 수행되었다면 그것은 그 단계에 적용한 독서 전략이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능숙한 독자라 할지라도 모든 단계에서 항상 적절한 독서 전략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독자는 자신이 선택한 독서 전략을 통해 목표한 결과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독서 전략을 바꾸어야 한다. 각 단계에 적용된 독서 전략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데에는 초인지*가 동원된다. 능숙한 독자는 초인지에 의해, 각 단계에 적용된 독서 전략을 점검하고 조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최종적인 의미 구성을 완성할 수 있다.

글을 읽고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독자의 인지 작용은 비가시적인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독자가 독서 후에 보이는 반응이나 행동을 통해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추론하게 된다. 독자의 의미 구성 과정을 인지 심리학자들의 분석이나 첨단 장비를 통한 뇌의 사진을 통해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부의 개입을 통해 독자의 의미 구성 능력을 향상하려 한다면, 그 결과는 결코 만족스러울 수 없을 것이다. 외부의 개입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독자의 능동적인 독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독자가 독서 단계에 맞는 적절한 독서 전략을 활용하여 독서 활동을 진행하고, 그러한 활동이 충분히 축적되었을 때 독자의 의미 구성 능력은 자연스럽게 향상되는 것이다.

*초인지: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하여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관찰 · 발견 · 통제하는 정신 작용

<p>2024 모고#2-1 수특 p294</p>	<p>독서의 목적을 고려하여 좋은 글을 선별해 전략적으로 독서하는 태도</p>
<p>이 글은 독서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다. 글을 읽는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행복을 느낄 수 없음을 제시하고, 자신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 지적·정신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글을 독서의 목적에 맞게 선별하여 독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선인의 사례를 들어 글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독서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독서 전략의 수립을 위해 자신의 독서에 대해 성찰하고 그 결과를 독서 전략을 수립하고 독서 활동을 하는데 반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p>	

독서는 독자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헤르만 헤세는 「책」에서 “이 세상 모든 책이 그대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않아. 하지만 가만히 알려 주지. 그대 자신 속으로 돌아가는 길과 그대에게 필요한 건 모두 거기에 있지.”라고 말했다. 이 말은 독서가 주는 행복은 글을 읽는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글을 읽는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독서를 통해 행복을 느끼는 것은 좋은 글을 선택하는 데서 비롯된다. 좋은 글이란 독자에게 지식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감동을 느낄 수 있게 해주며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지적 성장뿐만 아니라 정신적 성장도 이끌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자가 좋은 글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갖추어 자신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글을 찾아 읽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글이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고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인지 판단하는 것은 독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좋은 글을 판단하는 여러 기준 중의 하나로 독서의 목적을 들 수 있다. 우리는 다양한 목적으로 독서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목적에 맞게 가치 있는 책을 선택하여 적절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독서 할 수 있어야 한다. 독서의 목적이 다양하듯 독서의 방법도 일정할 수 없다. 사색의 깊이를 깊게 만들고자 한다면 정독하며 새롭게 깨달은 내용을 적으면서 사고를 이어 나가는 것이 좋으며, 책에 담겨 있는 의미를 되새김질하고자 한다면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자 한다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하면서 참고 자료를 찾아 관련 내용을 함께 습

득하는 것이 좋다. 조선 후기에 정치·경제·과학 등의 다방면에서 뛰어난 식견을 보여 준 홍석주는 하루에 여러 종류의 책을 함께 읽었다. 그는 아침에 머리 빗으며 읽는 책, 사랑채에 두고 읽는 책, 안채의 베갯머리에 두고 읽는 책이 모두 달랐으며 그 책을 읽는 방법 또한 달랐다. 가령 사랑채에서 책을 읽을 때 깊이 있는 탐구가 필요한 내용은 관련 주제의 책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읽었다. 이는 그가 시·공간별로 상황에 따라 독서 목적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방법으로 글을 읽었음을 보여 준다.

많은 사람이 훌륭한 글이라고 추천한 글이라도 읽는 사람의 수준이나 특성, 독서 목적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좋은 글이 될 수 없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책을 무턱대고 읽는 것은 오히려 안 읽는 것만 못하다. 독서도 무엇보다 전략이 중요하다. 독서 전략은 읽기 전·중·후 활동과 관련해 독서를 잘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서 전략을 잘 세우고 독서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독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자신의 독서 목적, 독서 방법과 절차, 독서 습관, 독서량, 독서 성향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읽기 전·중·후 활동에 대한 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하고 독서 활동을 하는데 반영해야 한다. 독서 전략을 잘 수립하여 좋은 글을 읽는 경험은 감동과 즐거움의 형태로, 때로는 성찰의 경험으로 독자의 내면에 쫓겨이 쌓여 독자의 내면을 바꾸고 성장시킨다.

2024 유형1 수완 8	QAR 독서 전략
<p>이 글은 라파엘이 개발한 독서 전략 중 하나인 QAR 전략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QAR은 독자들이 질문을 만들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독서의 목적을 달성하는 전략입니다. QAR에 서는 글 속에 해답이 있는 질문과 독자가 사고를 확장해야 하는 질문 유형이 있습니다. 글 속에 해답이 있는 질문은 '글에 해답이 그대로 있는' 확정 질문과 앞뒤의 정보를 연결해야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연결 질문'이 있습니다. 독자가 사고를 확장해야 하는 질문은 '저자와 나 사이에 해답이 있는 질문'과 '나의 생각에 해답이 있는 질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QAR 독서 전략은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나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거나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며, 추론과 판단의 사고 과정을 키우는 데 적합한 전략입니다.</p>	

연계 기출	
평가원	-
LEET	-

독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파악하고, 추론과 비판, 종합적 판단 등의 사고 과정을 통해 의미를 재구성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능숙한 독자들은 독서의 과정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식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방법, 즉 전략을 사용하여 독서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복잡한 글의 핵심 내용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마인드맵을 사용했다면, 마인드맵을 사용하는 것은 독서 전략이 된다. 핵심 내용 파악을 위해서 마인드맵뿐만 아니라 캐릭터 차트, 도식으로 정리하기 등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이 같더라도 전략은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다.

라파엘이 개발한 QAR(Question-Answer Relationships)는 독자들이 질문을 만들고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글의 정보를 파악하고 의미를 재구성하는 독서 전략이다. QAR에서 질문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글 속에 해답이 있는 질문이다. 이것은 글에 해답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확정 질문'과 앞뒤의 정보를 연결해야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연결 질문'으로 나눌 수 있다. 둘째는 독자가 사고를 확장해야 하는 질문이다. 이것은 다시 '저자와 나 사이에 해답이 있는 질문'과 '나의 생각에 해답이 있는 질문'으로 나눌 수 있다.

허생전의 예를 든다면 확정 질문은 '허생이 매점 매석을 한 물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처럼 정보의

위치를 확인하면 '과일과 말총'이라는 답을 바로 찾을 수 있는 질문이다. 연결 질문은 '허생과 이완의 복벌에 대한 생각 차이는 무엇인가?'와 같이 주로 주장과 근거 파악, 차이점과 공통점 파악 등 답이 텍스트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서 텍스트의 여러 부분을 결합해야 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저자와 나 사이에 해답이 있는 질문은 독자의 배경 지식과 글 안의 근거를 함께 활용해야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다. '허생이 손가락을 잡을 때는 오른손으로만 잡게 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은 글 안에 답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좁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옆 사람과 손가락을 드는 손이 달라 부딪쳐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허생이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 답을 할 수 있다. 나의 생각에 해답이 있는 질문은 자신의 상상이나 생각,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구성된 질문이다. '허생은 사라진 뒤 어떻게 살았을까?', '자신이 생각할 때 허생은 좋은 사람인가?'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독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답으로 말할 수 있다.

이처럼 QAR 독서 전략은 글 속에 해답이 있는 질문하기를 통해 글의 정보를 파악하거나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또 독자가 사고를 확장해야 하는 질문을 통해 추론과 판단의 능력을 키우는 데 적합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보기〉

KWL은 독서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독자의 배경지식과 독서를 통해 얻은 새로운 지식 사이의 결합을 촉진하기 위한 독서 전략이다. KWL에서는 독자가 '아는 것' (Know), '알고 싶은 것' (Want to learn), '배운 것' (Learned)을 표에 작성한다.

먼저 글의 제목이나 목차를 통해 화제를 파악한 후, 화제와 관련하여 알고 있는 것을 K에 자유롭게 적는다. W에는 더 깊이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한 질문을 만든다. W의 내용을 작성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글을 읽어가면서 K와 내용이 일치하는지, W의 내용이 나오는지 유의한다. 글을 다 읽고 난 후 L에는 새로 알게 된 내용을 기록한 다음, 새롭게 알게 된 것 중에서 의심이 생기는 내용이 없는지를 검토하여 L에 추가로 기록한다.

2024 3회1 수완 184p	독서 과정의 세 가지 모형의 특징과 한계
<p>이 글은 독서 과정의 세 가지 모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상향식 모형에서는 독서를 작은 언어 단위의 이해로부터 시작하여 큰 언어 단위의 이해로 확대하면서 텍스트의 전체 의미를 파악하는 직선적인 과정으로 본다. 하향식 모형에서는 독서를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가정이나 추측에서 비롯되는 의미 구성과정으로 본다. 상호작용식 모형은 텍스트의 직선적인 해독을 중시하는 상향식 모형과 독자의 배경 지식을 통한 가정과 추측을 중시하는 하향식 모형의 절충적 관점이다.</p>	

연계 기술	
평가원	-
LEET	-

독서 과정을 설명하는 모형은 상향식 모형, 하향식 모형, 상호작용식 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 세 모형은 완결된 메시지를 가진 의사소통의 단위인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

상향식 모형에서는 독서를 작은 언어 단위의 이해로부터 시작하여 큰 언어 단위의 이해로 확대하면서 전체 의미를 파악하는 직선적인 과정으로 본다. 예를 들어 '별'이라는 텍스트를 읽을 때 먼저 낱자 'ㅂ, ㄹ, ㅍ'를 인지하고, 다음으로 낱자들의 결합인 'ㅂ+ㄹ+ㅍ'로 된 글자를 확인한 후, 그 글자의 의미를 떠올리는 것이다. 따라서 상향식 모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작은 단위인 낱자의 식별부터 큰 단위인 글 전체의 의미 파악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여러 기능이다. 하지만 독자가 가진 어휘나 통사 구조에 대한 지식과 문맥도 텍스트 이해에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단순히 독서 과정을 직선적이고 상향적인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텍스트 해독을 중시하는 상향식 모형과는 달리, 하향식 모형에서는 독서를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가정이나 추측에서 비롯되는 의미 구성 과정으로 본다. 이런 가정이나 추측은 텍스트의 구조나 내용에 대한 독자의 배경지식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텍스트의 구조나 내용에 대한 풍부한 배경지식을 가진 독자는 텍스트를 쉽게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텍스트의 내용이 독자에게 매우 어려울 때에는 텍스트에 대한 가정과 추측을 하지 않고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순서대로 파악하며 읽

어나가는 것이 오히려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텍스트 내용이 매우 쉬울 때에도 굳이 텍스트에 대한 가정이나 추측에 시간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모든 독서를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가정이나 추측에서 비롯되는 의미 구성의 과정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상향식 모형에서 중시하는 텍스트 해독을 하향식 모형에서도 독서의 한 과정으로 생각하며, 하향식 모형에서 중시하는 배경지식을 통한 텍스트의 의미 구성 또한 상향식 모형에서도 독서의 한 과정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두 모형은 상대적으로 독서 과정에서 중심으로 여기고 강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구분되는 것이다. 따라서 독서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향식 모형과 하향식 모형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텍스트의 직선적인 해독을 중시하고 이로부터 독서를 시작하는 상향식 모형과, 독자의 배경지식을 통한 가정과 추측을 중시하고 이로부터 독서를 시작하는 하향식 모형의 절충적인 관점이 상호작용식 모형이다.

상호 작용식 모형에서 말하는 상호 작용이란 독자가 텍스트 이해에 사용하는 여러 기능 간의 상호 작용을 의미한다. 상호 작용식 모형에서는 어휘 식별 및 인식과 같은 낮은 수준의 독서 기능부터 가정과 추측을 통한 텍스트의 의미 파악과 같은 상위 수준의 독서 기능까지 다양한 독서 기능이 동시에 상호 작용하며 독서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독자의 배경지식을 통한 가정과 추측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것은 텍스트에 있는 단어나 문장 등의

의미 해독을 통해 더 정교해지고, 텍스트의 의미 해독은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가정과 추측 등이 개입하면서 더욱 정교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호 작용식 모형은 독서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원인이 배경지식을 활용한 의미 구성 기능의 문제인지, 언어를 해독하는 능력의 문제인지 명확하게 찾기가 어렵다.